

광주 양동시장 노점상 양성화 추진 주목

서구, 매달 도로점용료 받고 허가 방침...협의 나서 노점상들 “30년간 묵인해왔는데...규제라니” 반발

광주 최대 노점상 밀집구역인 양동시장 노점상은 ‘불법’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광주 서구가 30여 년간 불법 상행위를 묵인해온 양동시장 경열로 노점상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 곳 노점상인들 대다수가 6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들이라는 점, 수십년간 묵인해오던 노점을 한파가 몰아치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규제하겠다는 점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오다가 뜬금없이 제도권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행정기관의 개입이나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점 상인들의 거부감과 함께 계절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인 점, 노점 상인 대다수가 60대를 훌쩍 넘긴 할머니들이라는 점이 협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다수 노점 상인들의 반발에도 일부 상인들

은 “아케이트(비가림시설)에 설치된 조명을 우리(노점) 방향에도 설치해달라”, “점용료를 낮춰달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마주하고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온 한 거리 상인들을 양성화해 거리 질서를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면서 “기한을 정해놓고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상인과 행정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양동시장 노점상 위치도



서구는 양동시장 도로변에 밀집한 노점을 양성화하기 위해 노점 상인들과 협의의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양동시장 경열로 가장자리의 6m 너비 인도(人道)에는 30여 년째 시장 상인들과 노점 상인 50여 명이 마주보며 장사를 하고 있다. 상인 한 명당 1~2평 크기의 좌판을 300m 길이의 인도에 펼쳐놓고 과일, 곡물, 채소, 건어물 따위를 판다.

서구는 노점 상인별로 상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설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도로 점용료를 거두는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도로 점용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점을 양성화할 경우 노점 상인들이 정해진 공간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게 돼 자연스럽게 보행자들의 통행권도 확보되고 거리 질서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점 상인들에게 ‘세금(점용료)’을 내고 깨끗하고 맘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반영됐다.

노점 상인들은 그러나 서구의 노점 양성화 정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사실상 30여 년간 자신들의 상행위를 묵인해



8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경열로)에서 시장 상인들과 노점 상인들이 마주보고 장사를 하고 있다. 서구가 이곳 노점의 양성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노점 상인들은 “30여년간 묵인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규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지검 맹활약 돋보이네 수사·공판 전국 최고 성과

미제사건 해결 최우수 지역사회 봉사도 앞장

형사사건 미제 해결 최우수, 형사조정 실적 전국 1위, 학교폭력·부정식품 대응 우수, 형사2부·공판부 전국 최우수...

올해 광주지검(김사장 김해수)의 수사 성과다.

특히, 고질적 4대 비리 척결을 위해 김희준 차장검사를 필장으로 한 ‘부정부패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한전전력 시스템 조작 사건(27명 인·구속), 범조브로커 사건(10명 인·구속), 범조브로커 사건(7명 인·구속) 등 부정부패 수사에 전력했다.

광주지검은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법이론, 증권·금융, 공안, 강력, 구조적 부정부패, 국제형사·외사 등 7개 분야의 ‘광주검찰 전문화 커뮤니티’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검사 전원과 수사관 92명이 참여해 매월 1회 점심식사를 곁들여 토론하는 정기 세미나다. 커뮤니티 덕분에 수사관들의 전문분야 수사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배려교통 실천운동 등 시민문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이 운동은 법무부가 주최하고 광주지검이 주관하는 것으로, 제도성

캠페인이 아닌 참여 문화운동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배려춤을 추며 서로를 격려하는 ‘S(시작해요) O(오늘부터) S(서로 배려를)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이 인가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시작으로 검찰, 지자체, 교육청 등을 넘어 최근에는 EXID 등 인기 걸그룹도 가세했다. 8일 현재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가 2만여명을 넘어섰고, 전용 페이스북 가입자도 2만2000여명을 돌파했다.

2개월간의 배려교통문화 캠페인으로 광주지역 교통사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4%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캠페인 참여 확산에 따라 교통사고는 반비례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검은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도 큰 힘을 보탤다. 지난 3월 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을 위해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U대회지원단을 발족, 적극 지원했다. 이밖에도 소년범에 대해 전문 맞춤형 상담 및 치료와 함께 상담조각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청소년상담제도’를 시행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김해수 검사장 부임 후 ‘믿음직한 검찰, 따뜻한 광주지검’을 복무방점으로 정하고,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왔다”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검찰관 행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문길 버스 전도...3명 중상

8일 오전 10시 14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봉담 3터널 부근(목포 기점 11km)에서 25인승 버스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모씨를 포함한 탑승객 13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다른 탑승객들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처리 등

사고 수습이 완료돼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탑승객들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강제로 조문을 거둔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가 1차선을 달리던 도중 운전석 쪽 타이어 펑크로 균형을 잃고 좌측 녹지대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청소년 고용사업장 ‘탈법 갑질’

10곳 중 7곳 근로기준법 위반

지역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근로기준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지역 청소년 고용 사업장 56곳을 정기 감독한 결과 39개 사업장에서 모두 6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30곳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 명시 위반 16

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2건, 임금체불 5건, 최저임금 통보 위반 4건, 최저임금 미준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한 편의점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아 181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고, 남구 주월동 한 편의점은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 344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노동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법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함께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 권익 특강을 12월 한 달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을 위해 신고전화(1644-3119)도 운영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연말 틈타 또 활개치는 ‘불법 호객’

상무지구 업주 3명 검거

서부경찰, 지속적 단속키로

연말을 틈타 광주 상무지구 일원에서 또 다시 불법 호객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은 하룻밤 새 일명 ‘빼빼’를 고용해 영업을 벌여온 유흥주점 업주 3명을 검거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상무지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정모(36)씨 등 3명과 호객꾼 김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종업원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호객꾼 김씨 등은 행인들을 자신들의 업소로 끌어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틈타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호객행위가 활개칠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무비자 입국 러시아 남성들 편의점 돌며 술 상습절도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무비자 입국을 했다가 광주지역 편의점을 돌며 술만 골라 훔쳐 마신 불법 체류 러시아 남성들이 경찰에 들렸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A(35)씨 등 2명은 지난달 8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 서구 광산구 흑석동 이모(44)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양주 2병과 와인, 소주 등 18만원어치 술을 훔치는 등 한 달 새 편의점 4곳을 돌며 180

만원 상당의 술을 훔친 혐의.

○...A씨 등은 편의점이 한적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물건의 위치를 몰으며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진열대에 있던 양주 등을 외투 안에 넣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수법을 써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원래 좋아한다.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지 않았다. 단지 그것 뿐”이라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등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5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대 학 원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5. 12. 7(월) ~ 15(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5. 12. 18(금) 오전 10시
		목회학과(D.Min.)	2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25	2015. 12. 19(토) 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0	2015. 12. 18(금) 오전 10시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2015. 12. 19(토) 오후 3시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2015. 12. 19(토)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10	
음악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2015. 12. 19(토) 오후 3시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